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295>

JCCT 2024-11-37

섬진강 유역 잠재자원 조사 및 분석 연구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Potential Scenic Sites in the Seomjingang River Basin

히예은*, 이한진**

Yeun Heo*, Hanjin Lee**

요약 본고는 섬진강 유역 내에 위치한 다양한 잠재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명승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적 기준과 국가유산체계 명승자원 평가기준을 반영한 2개 층위의 단계별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지표에 따라 상호비교가 가능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각 잠재자원의 경관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명승으로 지정된 곡성 함허정의 경우, 역사적, 경관적, 문화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보성 일림산과 광양 망덕포구로 대표되는 중하위 잠재자원 목록은 역사성, 원형보존성, 활용성, 식생현황, 시각조망성 등의 측면에서 각각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자원들이 명승자원으로서 갖추고 있는 잠재력이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섬진강 유역뿐만 아니라 국내 큰 강 유역의 명승자원 발굴 및 보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명승자원, 유네스코, 경관가치, 지속가능성, 보존 전략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and analyze various potential resources located within the Seomjin River basin to identify and preserve scenic resources with outstanding potential, thereby promoting their sustainable use. To achieve this, we have established a two-tier evaluation index, incorpora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UNESCO Convention as well as domestic criteria for scenic resource evaluation. Through this framework, each potential resource was assessed objectively, examining its scenic,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 in detail. As a result, Hamheojeong in Gokseong, which was designated as a scenic spot, was evaluated to have very high historical, scenic, and cultural values. On the other hand, the list of mid-to-low potential resources represented by Illimsan in Boseong and Mangdeokpo in Gwangyang was found to have areas for improvement in terms of historical value, original preservation, usability, vegetation status, and visual view. Based on these assessments, strategies were explored to enable these resources to fully realize their potential as both scenic and tourism assets. Through this results, it provides practical grounds and methods for local communities, academia, and policymakers to effectively utilize these resources.

Key words : Scenic Sites, UNESCO, Landscape Values, Sustainability, Conservation Strategies

*준회원, 한동대학교 ICT창업학부 연구조교 (제1저자)

**정회원, 한동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1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August 1, 2024 / Revised: September 12,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cus@handong.edu

School of Creative Convergence Education, Handong Global University, Korea

I. 서론

국내 큰 강 유역에는 다양한 잠재자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역사적, 경관적, 자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국내 문화유산 정책과 연계하여 정성적인 방법론으로 각 자원마다 그 의미를 기술하고 평가해왔다[1,2]. 그러나 하나의 보편적인 평가체계로 정량적인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한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직 각광받지 못한 자원은 그 가치를 적극 알리고, 가치별 분석을 표준화하여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보완점을 발굴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보편적 타월성을 갖춘 명승으로 향후 지정될 수도 있는 국내 잠재자원의 가치분석과 연구의 주요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1]. 이를 위해 먼저 섬진강 유역 내의 34개 잠재자원 중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방법론과 평가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두꺼비 섬(蟾)’ 자가 붙은 ‘섬진(蟾津)’ 명칭은 1383년(고려 우왕9)경 《고려사절요》에 처음 나온다[2]. 고려 시대 왜구가 남해로 침입하였을 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 떼가 울부짖어 적들이 광양 쪽으로 피해갔다는 전설에서 기인한다[2]. 그 후 ‘섬진강(蟾津江)’ 명칭은 1640년(인조 18) 《기연》 제28권 하편 산천하에 나온다[2,3].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국내에서 4번째로 큰 강이다[3,4]. 역사적으로 고대 가야문화와 백제문화의 접촉지대, 신라와 백제의 접경,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는 왜군의 침입경로 등 다양한 역사적 장소로 명승지 잠재 자원들을 조사할 가치를 가진 지역이다[5,6,7]. 1경 봉어섬 · 2경 구담 · 3경 장군목 · 4경 사성암[명승 111호] · 5경 왕시루봉 · 6경 평사리 · 7경 송림공원 · 8경 무등산을 지정하여 자연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8]. 그러나 섬진강에 존재하는 더 많은 잠재적 명승경관자원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연구조사를 할 필요성이 크다[9,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자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객관적인 가치별로 항목을 정하였다[11,12].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에 근거하여 가치평가 내용에서는 1차 종합가치 평가를 실시하고[13], 2차로 주요지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두 가치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총 평가점수를 도출하였다[11,14].

1차 종합가치 평가에서는 자연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 경관적 가치의 총 3개의 항목을 합계하여 점수를 도출하였다. 각 항목마다 최대평가점수 10점, 총점 30점으로 설정하였다. 2차 주요지표 가치평가에서는 역사성, 원형 보존성, 활용성, 식생 현황, 시각 조망성의 총 5개의 항목을 각각 최대평가점수를 14점으로 하여 총점 70점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1차, 2차 평가의 총점들을 합산하여 총점이 100점이 되도록 계산하여 수치화하였다.

II. 섬진강 유역 잠재자원 분석 연구

1. 곡성 함허정 일원 (谷城 涵虛亭 一圓)

1) 곡성 함허정 일원 소개

곡성 함허정 일원[谷城 涵虛亭, 전라남도 시도유형문화재, 또는 호연정(浩然亭)]은 전남 곡성군 입면 청계동로 908-4(제월리)에 위치하며, 군지촌정사(涇池村精舍, 국가민속문화유산)는 곡성 제호정 고택의 사랑채를 말한다. 2023년 11월 14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예고 되었다[2]. 조선 중기 문사(文士) 제호정(齊湖亭)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군지촌정사를 짓고 섬진강(순자강) 일대 구릉지에 함허정을 건립하였다. 함허정(涵虛亭) 일대는 풍수상 거북이가 용궁을 향해 입수하는 형국으로, 거북이의 등 위에 함허정이 자리하고 절벽 아래의 깊은 웅덩이인 용소(龍沼)와 구암(龜巖)조대(釣臺, 낚시질 하는 곳)라 불리는 하중암도(河中巖島, 강 속에 섬처럼 떠 있는 암반)가 있으며, 거꾸로 ‘용(龍)’자를 새긴 용암(龍巖) 관련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옥과현지(玉果縣誌, 1788)』, 『호남읍지제2책옥과현읍지(湖南邑誌第2冊玉果縣邑誌1871)』 등에 심광형(沈光亨)의 증손인 구암(龜巖) 심민각(沈民覺, 1589~1643)이 쇠락한 누정을 옮겨 짓고 정자의 이름을 ‘호연정(浩然亭)’으로 개칭했다고 전해진다[3]. 여러 차례 중수(重修)를 거쳐 19세기에 이르러 창건 당시의 이름인 함허정으로 복칭(復稱) 되었다[3,6]. 제호정(齊湖亭) 고택과 연계되어 특별한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 옥과 현감을 지낸 위백규(魏伯珪, 1727~1798), 최원(崔瑄, 1788~?)과 서화가 신위(申緯, 1769~1845) 등 문인들의 교류 기록, 주변의 경관을 읊은 기문과 시문들이 전해지고 있어 그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다[4,5].



그림 1. 곡성 함허정 (출처: 곡성군청)
 Figure 1. Gokseong Ham Heojeong

2) 곡성 함허정 일원 가치 분석

곡성 제호정 고택과 함허정의 1차 종합가치 평가는 표 1과 같이 자연적 가치는 10점 중 5.3점(중), 역사·문화적 가치는 10점 중 8점(상), 경관적 가치는 10점 중 7.3점(상)으로 총 30점 중 20.6점으로 잠재적 가치가 우수하다.

표 1. 곡성 함허정 일원 1차 종합가치평가표
 Table 1. 1st Comprehensive Valuation Table of Hamheojeong, Gokseong

구분	자연적 가치(10)	역사·문화적 가치(10)	경관적 가치(10)	합계 (30)
점수	5.3	8.0	7.3	20.6

함허정 일원의 2차 가치분석은 표 2와 같이 역사성의 경우 조선시대 고문헌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등이 있기에 4점, 주변지형은 840번 지방도로로 변형되었으나 원래의 옛길이기에 원형보존성에 3점, 이로 인해 지방도로로 활용성이 좋기에 활용성 또한 3점을 주었다[7].

표 2. 곡성 함허정 일원 2차 주요 지표 가치평가표
 Table 2. Valuation Table of the 2nd Major Indicators in Hamheojeong, Gokseong

구분	역사 성 (14)	원형 보존 성(14)	활 용 성 (14)	식생 현황 (14)	시각 조망 성 (14)	합계 (70)
점수	14.0	10.5	10.5	10.5	7.0	52.5

아울러 주변 식생현황은 대부분 낙엽활엽수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식생이 양호하기에 식생현황 항목에 3점 평가를 받았다. 명승 경관적 가치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이 상류에 있으나 제월섬으로 차폐되어 경관적 가치가 좋기 때문에 시각조망성은 2점으로 매겨졌다. 따라서 표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총점 70점 중 총합 52.5점, 1차와 2차 합산 총 73.1점이다.

표 3. 곡성 함허정 일원 1·2차 평가 합산표
 Table 3. Sum table of the 1st and 2nd evaluations of Hamheojeong, Gokseong

1차 평가점수 (30)	2차 평가점수 (70)	합계 (100)
20.6	52.5	73.1

곡성 함허정 일원의 경우 34개의 연구대상의 평균과 비교해보았을 때 표 1의 1차 가치평가 평균인 14.6점, 표 2의 2차 가치평가 평균인 36.1점에 비해 각각 20.6점과 52.5점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보여준다. 다른 잠재자원들과 달리 곡성 함허정 일원은 명승지정에 요건을 갖추어 2023년 공식적인 명승지정 예고 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쳤다. 그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 후 곡성군에 소재한 문화재 중 최초로 명승에 지정되었다[5].

이처럼 명승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자원의 가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문화재를 이처럼 세세하게 조사하는 것은 매우 많은 자원과 시간이 들며 비경제적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와 같은 잠재자원 조사 및 분석 연구들을 통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명승으로서 충분한 가치와 요소들을 지닌 자원들을 꾸준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곡성 함허정은 매우 높은 역사적 가치와 시각적인 가치를 지니면서도, 주변 지방도로로 인한 접근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개발시키기에 매우 우수하다. 또한, 용암(龍巖) 전설과 거북이 이야기 등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찾을 만한 요소들이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하면 곡성 함허정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판단된다.

2. 보성 일림산 (寶城 日林山)

1) 보성 일림산 소개

보성 일림산 (寶城 日林山, 668.1m)은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과 회천면 사이와 장흥군의 안양면 학송리·당악리, 보성군 웅치면 용반리, 회천면 봉강리·회령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보성강 발원지가 해발 540m지점에 있다[8]. 보성 일림산의 지명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설화가 전해지는데, 《한국지명유래집》에 의하면 장흥에서는 옥황상제의 세 황비가 내려와서 놀았다는 설화의 '삼비산(三妃山)', 황비가 내려왔다 해서 '천비산(天妃山)',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황비가 놀았다고 해서 '천비산(泉妃山)', 수많은 날을 신비한 안개로 뒤덮인다고 해서 '현무산(玄舞山)' 등과 또는 입주산, 입수산으로 부른다고 되어 있다[9].



그림 2. 보성 일림산 (출처: 보성군청)
Figure 2. Ilimsan Mountain, Boseong

고지도에서의 일림산은 1871년에 편찬한 《호남읍지(湖南邑誌)》 장흥도호부지도와 1899년에 편찬한 《장흥군읍지(長興郡邑誌)》 지도에 보인다. 일림산 정상부에는 철쭉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데, 30만 평 규모의 철쭉 경관이 뛰어나 명성이 알려지자 2006년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림산으로 지명을 고시하였다[8]. 산 밑에는 사찰인 일림사(日林寺)가 있는데, 1899년에 편찬한 《장흥군읍지(長興郡邑誌)》 불우조에 ‘장흥군 관아 동쪽 30리 회령면 전일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전해진다[9].

2) 보성 일림산 가치 분석

보성 일림산의 1차 종합가치 평가는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자연적 가치는 10점 중 5.3점(중), 역사·문화적 가치는 10점 중 3.3점(하), 경관적 가치는 10점 중 6점(중)으로 총 30점 중 14.6점으로 잠재적 가치가 낮다.

표 4. 보성 일림산 1차 종합가치평가표
Table 4. 1st Comprehensive Valuation Table of Boseong Ilimsan

구분	자연적 가치(10)	역사·문화 적 가치(10)	경관적 가치(10)	합계 (30)
점수	5.3	3.3	6	14.6

보성 일림산의 2차 가치분석은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성의 경우 고문헌에 없으며, 지방읍지인 고지도에 일림산만 전해지고 보성강발원지(선녀샘)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역사성 3.5점. 보성 일림산의 원래 모습은 보존되고 있기에 원형보존성에 10.5점, 보성 일림산 철쭉제가 매년 5월 전후해서 개최되며, 여름은 용추계곡 등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8]. 이에 양호한 활용성을 나타내므로 활용성 10.5점이다. 또한 주변 산야의 식생현황 비교적 양호하기에 식생현황에 7점, 명승 경관적 가치로는 일림산의 경관 가치로는 양호하나 뛰어난 경관 가치를 가지지는 못한다는 분석에 따라 시각조망성 7점을 가진다. 총점 70점 중 총합 38.5점, 1차와 2차 합산 총 53.1점이다.

표 5. 보성 일림산 2차 주요 지표 가치평가표
Table 5. Second Major Indicators' Valuation Table of Ilimsan Mountain, Boseong

구분	역사 성 (14)	원형 보존 성 (14)	활 용 성 (14)	식생 현황 (14)	시각 조망 성 (14)	합계 (70)
점수	3.5	10.5	10.5	7	7	38.5

표 6. 보성 일림산 1·2차 평가 합산표
Table 6. Sum table of the 1st and 2nd evaluations of Ilimsan Mountain, Boseong

1차 평가점수 (30)	2차 평가점수 (70)	합계 (100)
14.6	38.5	53.1

전반적으로 보성 일림산의 평가점수는 34개의 연구대

상 중에서는 중위권에 속하는 편이다. 1차 가치 평가의 평균인 14.6점, 2차 가치 평가의 평균인 36.1점에 비해 각각 14.6점과 38.5점으로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가치 항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일립산의 경우 산지인 만큼 자연 경관적 가치와 보존성이 높다. 일립산에 있는 용추계곡과 용추폭포, 절쪽 원경을 발굴 및 보존하여 가치를 높이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일립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더욱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산’이라는 지형이 가지고 있는 활용성과, 아름다운 전경을 가지고 있는 점은 관광지로 그 가치를 다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관건은, 일립산의 잠재 관광 자원을 알리는 것이 중점이다[9].

일립산에는 보성강의 발원지인 ‘선녀샘’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한국지명유래집》에서 언급된 세 황비와 관련된 설화를 활용하면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설화의 특성상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들이기 적합하므로, 이를 알리기에다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은 영향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3. 광양 망덕포구(光陽 望德浦口)

1) 광양 망덕포구 소개



그림 3. 광양 망덕포구 (출처: 광양시청)
 Figure 3. Mangdeok Port, Gwangyang

광양 망덕포구(光陽 望德浦口)는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845-1 일대에 위치한다[9]. 하동과 광양의 경계지역에 있으며, 전어축제가 열리는 광양의 포구이고 백두대간의 끝자락이며, 호남정맥의 시작점인 망덕산 아래에 있다. 이 유래는 광양만을 한눈에 왜구를 파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망명’이라 하였으며, 이를 한자 음을 빌려 ‘망덕’이라 하였다는 설과 전북의 덕유

산을 바라본다는 데에서 유래한다는 설 등이 있다[10].

조선시대 고문헌 기록에는 없고 [1872년 군현지도] 광양현지도에 망덕산이 보이며, 1899년 편찬한 《전라남도 광양군읍지》의 지도에는 망덕산 아래에 선소와 3곳의 선소촌이 있고, ‘선소창금폐’라 하여 ‘지금은 폐창했다’고 주기되어 있는데, 지금의 확장된 망덕포구 바로 북쪽 위로 추정된다. 1909년 측도한 근대지도에서는 ‘외망’에서 하동의 고포(高浦)로 연결하는 나무가 있었고, 아래쪽에는 태인도로 연결하는 나무가 있었다[8]. 1919년에 발간한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 광양군 진하면 포구명에서는 ‘망덕포’라는 지명이 보인다. 최근 섬진강 배암도를 연결하는 배암섬나무가 있었으나 ‘별혜는 다리(해상보도교)’가 2021년 9월 개통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9,11].

2) 광양 망덕포구 가치 분석

광양 망덕포구의 1차 종합가치 평가는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가치는 10점 중 3.3점(하), 역사·문화적 가치는 10점 중 1.3점(하), 경관적 가치는 10점 중 3.3점(하)으로 총 30점 중 7.9점으로 잠재적 가치가 약하다.

표 7. 광양 망덕포구 1차 종합가치 평가표
 Table 7. 1st Comprehensive Valuation Table of Mangdeok Port, Gwangyang

구분	자연적 가치(10)	역사·문화적 가치(10)	경관적 가치(10)	합계 (30)
점수	3.3	1.3	3.3	7.9

광양 망덕포구의 2차 가치분석은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성의 경우 고문헌에 없으며, 일제강점기 시대 문헌자료와 고지도에 망덕산만 전해지므로 3.5점, 망덕포구의 원래 모습이 변형되어 원형보존성 또한 3.5점이다. 하지만 현재 전어축제 등 망덕포구의 활용성은 양호하기에 10.5점의 가치가 매겨진다.

게다가 주변 산야의 식생현황 중 섬진강하구의 배암섬은 수중식생원형을 보존하지만 주변은 개발로 약하므로 식생현황에 7점, 명승 경관적 가치로는 섬진강 하구와 배암도 일대는 경관가치로는 양호하나 현대 항만시설의 방파제와 접안시설 등 상당히 개발된 포구라 약하므로 시각 조망성은 7점이다. 총점 70점 중 종합 31.5점,

1차와 2차 합산 총 39.4점이다.

표 8. 광양 망덕포구 2차 주요 지표 가치평가표
Table 8. Second Major Indicators' Valuation Table
of Mangdeok Port, Gwangyang

구분	역사성 (14)	원형보존성 (14)	활용성 (14)	식생현황 (14)	시각조망성 (14)	합계 (70)
점수	3.5	3.5	10.5	7	7	31.5

표 9. 광양 망덕포구 1·2차 평가 합산표
Table 9. Sum table of the 1st and 2nd evaluations
of Mangdeok Port, Gwangyang

1차 평가점수 (30)	2차 평가점수 (70)	합계 (100)
7.9	31.5	39.4

섬진강 34개의 연구대상 평균 점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광양 망덕포구는 하위권에 속한다. 1차 가치 평가의 평균인 14.6점, 2차 가치 평가의 평균인 36.1점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여준다.

망덕포구의 경우 역사적 가치와 시각조망성 등 대부분의 관광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약하다. 하지만 광양 망덕포구만의 '전어축제'와 운동주 시인의 유고를 가졌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광양 망덕포구를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포구의 특성상 이미 변형된 원형을 다시 되돌리고 보존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 활용성을 더욱 개발하여 좋은 관광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결론 및 제언

섬진강 유역의 34개소 대상지 중 가치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하여 상, 중, 하위권에 속한 각 한 군테의 자원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고의 목적을 다

시금 다질 수 있었다. 충분히 명승 및 우수 문화재로 지정 가능한 가치와 요소들을 지니고 있는 잠재자원들이 매우 많이 있지만 해당 요소들을 세세하게 분석하기 전까지는 그 가치와 활용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본고에서 언급한 곡성 함허정의 경우, 역사적으로도 경관적으로 또한 문화적 및 접근성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였으나 비교적 매우 최근인 2023년에서야 명승 지정 예고 후 최종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이렇듯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묻혀있는 잠재자원들이 국내 매우 많을 것이다.

하지만 본론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러한 모든 자원들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각 자원마다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성 일림산과 광양 망덕포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사적 가치나 시각 조망성이 매우 뛰어나지 않은 경우는 자원의 가치를 한 눈에 알아보고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각 자원의 활용성을 분석하고, 관광자원으로서도 충분한 요소를 가진 것을 파악하기에는 꾸준한 조사와 관심이 필요하다[15,16]. 본 연구가 제시한 평가방법론을 기준으로 향후 잠재자원들의 평가 및 분석에 있어 학술적, 기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Korea Heritage Service, Research on Natural Heritage and Scenic Sites in the Great River Basin, Special Report 1(3), 1-403, 2023. Available at www.khs.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87812&bbsId=BBSMSTR_1021
- [2] Lee Eui Ha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cenic Spots Distributed in the Honam Region.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12 (1), 149-160. 2023. DOI: 10.25202/JAKG.12.1.9
- [3] Min Huh, Jaeung Min, Yeong-Koo Koh, Joo-Yong Kim, & Sungjae Jang. Research and Analysis of Seomjin River Drainage Area based on Ecological Environment. Journal of the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 26(1), 71-86. 2010.
- [4] Yoon Jeong-ran. The Process of Building a Historical and Cultural Map Database from a Gender Viewpoint - Focused on Historical Areas in the East Coastal of Jollanam-do and

- the Seomjin River Basin. *Women and History*, 13(1), 173–218. 2010. DOI: 10.22511/women.13.201012.173
- [5] Hong, Seok-Jo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Water as a Cultural Heritage, Focused on Youngsangang(River). *Journal of the Island Culture*, 61, 7–37. 2023. DOI: 10.22917/island.2023.61.7
- [6] Jeon, Jong-Han.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Categorization of National Heritage 'MyeongSeung'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World Heritage Concept and its Criteri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6), 929–943. 2013.
- [7] Byun, Chan-bok, & Han, Su-jung. The Relationship among Tourist Experience, Authenticity and Tourist Satisfaction of World Cultural Heritage.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22(4), 261–282. 2013
- [8] Lee, Chang-hun, & Lee, Won-ho. A Study on Scenic Sites Introduced in 『Joseon MyungSeung Sisun (朝鮮名勝詩選)』.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5(1), 1–9. 2017.
- [9] Lee, Won-Ho, & Kim, Jae-Ung. Landscape View Point on the Technique of GIS Visibility Analysis for Scenic Resources Excavation – Focused on Haenam Dalmasan Mihwangsa (Scenic Sites No. 59).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9), 429–439. 2013. DOI: 10.5392/JKCA.2013.13.09.429
- [10] Kim, Jeong-moon, Kim, Hwa-ok, Rho, Jae-hyun, & Kim, Soon-ki. Landscapes Resource Characteristic Analysis of Mt. Daedun, Wanju, Based on Designation Criteria of 'Scenic Sit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4(0), 19–28. 2016.
- [11] Kim, Choongsik.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Scenic Sites Considering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Journal of the Korea Landscape Council*, 10(2), 123–134. 2018.
- [12] Janet, R. Balsom, Lee, Won-ho, & Kim, Dong-hyun. A Comparison of the Designation Characteristics of Korean Scenic Sites Policies and National Park System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8(3), 25–34. 2020.
- [13] Lixinski, Lucas, *Heritage and the Environment*. Chapter 6 in *International Heritage Law for Communities: Exclusion and Re-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4250685>, October 18, 2019.
- [14] Zhang, M., Xiong, K., Wang, X., & Zhao, X.. Natural Beauty and Esthetic Value of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a Literature Review and Implications for Karst Geoheritage Sites. *Geoheritage* 14, 84, 2022. DOI: 10.1007/s12371-022-00714-8
- [15] M. Y. Bang, “Revitalize the Tourism Experience Program of Hyanggyo and Seowon – Focusing on World Heritage sites in Kore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9(1), 249–255, 2023. DOI: 10.17703/JCCT.2023.9.1.249
- [16] Yoon, Sojung, Son, Gaeun, Yoon, Donghyun, & Lee, Hanjin. Revitalizing Local Tourism Case through the Metaverse Technology.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12(1), 25–33, 2024. DOI: 10.22716/sckt.2024.12.1.003